

## 한국 가족의 사회화 기능에 관한 문헌연구

김민호\*

### < 목 차 >

- I. 머리말
- II. 한국 가족의 사회화 양상
  - 1. 도시 중류 가족
  - 2. 도시 빈민 가족
  - 3. 농촌 가족
- III. 한국 가족의 사회화 관련 요인
  - 1. 가족 내적 요인
  - 2. 가족 외적 요인
- IV. 맺음말 : 한국 가족의 사회화 기능 강화 방안
  - 참고문헌

### I. 머리말

우리는 가정<sup>1)</sup>생활을 통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사회 유지와 존속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규범과 태도 등을 습득한다. 다시 말해, 가족은 개인에 대해서는 생활과 생존, 성의 기회, 보호와 지지, 사회화 및 사회적 일체감 등을 제공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종족의 유지, 성의 통제, 문화의 보존과 전승, 신분귀

\* 제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1)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어버이와 자녀 등 근친자들이 함께 모여 의·식·주 따위의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집단"을 가리키며, 가족은 "이러한 공동생활을 하는 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소 개념상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신기철·신용철, 1989: 35-36참조).

속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김영모, 1990:118). 한편, 가족은 그 크기, 유형, 범위 및 주기 등에 따라 '형태적 구조'가 달라지며, 가족 내 애정, 역할 및 권력 구조 등에 의해 '관계적 구조'가 결정된다(김영모, 1990:104).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기능과 구조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변화순·김현주, 1990 참조). 오늘날 우리사회의 가정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국제화와 개방화로 인해 전통사회의 가족<sup>2)</sup>과는 다른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속에서 그 구조와 기능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너무나도 빠르고 넓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학력(學歷)을 바탕으로 하는 치열한 지위경쟁구조 속에 내던져져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급격한 변화를 '가정이 흔들리는' 위기상황으로까지 진단하고 있다(동아일보, 1990년 5월 3일 참조). 바꿔말해, 급속한 사회변화의 와중에서 한국의 가족은 전형적 모형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 가정의 기능의 하나인 자녀들을 사회화(socialization)하는 데에도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역할을 소신껏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가정교육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식의 문제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남들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뒤질 수 없다’는 핑계로 사회분위기에 휩쓸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태도가 많다는 것이다. 개개인을 만나보면 모두 지금의 자녀교육, 가정교육에 문제가 많음을 느끼고는 있지만 뒤질 수 없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선애·유철인(1994:60).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오늘날 우리 가정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오늘날 한국의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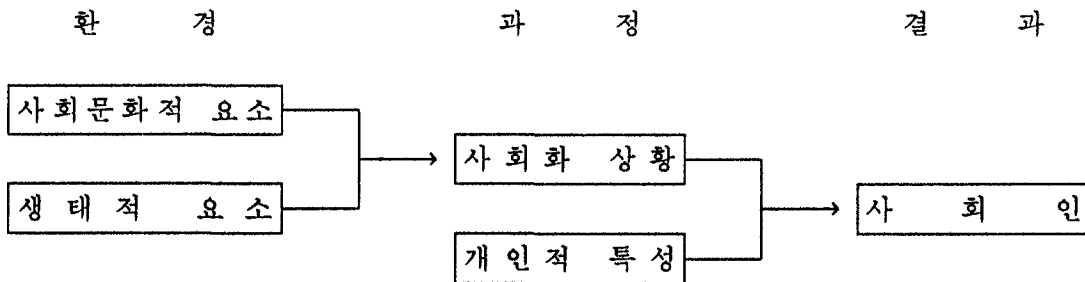
---

2) 전통사회의 가족이란 전형적인 '가부장제 가족'으로서 1)조부모, 부모, 장남부부, 장손부부와 같이 제사상속자를 주축으로 하는 직계가족 형태이며 2)집안(家)의 제일 윗세대의 부계남자가 강한 통제를 행사하며 3)부자관계가 다른 어떤 가족관계보다 중요시되고 4)가부장의 권위는 부계조상의 제사의 주관자라는 지위에 의해 뒷받침되며 5)가장의 지위계승자인 아들을 획득할 의무가 있고 6)가부장의 지위계승자인 장자는 다른 어떤 아들들 보다 많은 특권을 갖는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정은 조선 중기 이후 대두하였다(최재서, 1986).

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으며, 자녀들은 어떻게 사회화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녀들의 이러한 사회화 양상을 서구 산업 사회처럼 전통가족에서 현대가족으로 이행하는데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오늘날 한국의 가족구조 및 가족이 처한 사회·물리적 조건들과의 관계에서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가족의 사회화 기능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제들은 아래 <사회화의 개념모형>을 준거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과 자료의 면에서 보면, 첫째 문제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인의 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물들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및 기타 가족의 사회화에 관한 기존 연구물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다. 둘째 문제는 오늘날 한국 가족의 내적, 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물들을 토대로 답할 것이며, 셋째 문제는 가정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1> <사회화의 개념모형>



- 사회 문화적 요소 : 정치, 경제, 사회계층, 가치체계
- 생태적 요소 : 자연환경, 취락유형
- 사회화 상황 : 사회화 담당자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상황
- 개인적 특성 : 사회화 담당자와 당사자의 내적 속성
- 사회인 : 사회화된 결과로서의 인간

\* 출처 : 김신일 외(1983:11)

## II. 한국 가족의 사회화 양상

앞의 사회화의 개념 모형에서도 제시했듯이, 가족의 사회화 상황은 가족이 처

한 사회문화적, 생태적 환경조건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런데, 오늘날 가족의 사회화 상황은 이 조건들에 따라 대체로 도시중류가족, 도시빈민(혹은 노동계층)가족 및 농촌가족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김광익, 1983; 김영찬 외, 1985 참조). 또한 가족에서의 사회화 양상 역시, 이렇게 구분된 가족 사회화 상황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신일, 1983; 김광익, 1983; 김영찬, 1985; 황정규, 1989; 안귀덕, 1989; 조은, 1990; 김미하, 1990). 이제 각 유형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들의 사회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도시 중류 가족

도시중류가족에서는 전통과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국적이 불분명한 사회화가 진행 중이다. 핵가족화, 인근 공동체의 약화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나 이웃 어른들을 통해 전통적인 예의 범절을 익히거나 옛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매우 적어졌다. 오히려 과학과 문명의 이기에 친숙하다. 또한, 부모들(특히, 어머니)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그때 그때 행동해야 하므로 육아를 위한 도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그 책들 대부분이 양서의 번역물이거나 서양의 육아를 기본으로 하여 쓰여진 것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한국문화를 계승(enculturation)하기 보다는 외국문화에 이식(acculturation)당하고 있다. 조부모가 동거하는 경우라도 그들의 영향력은 적은 편이다(김신일, 1983:18,26).

또한, 사회가 급변하고 전문화되며, 능력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장 큰 집안에서의 역할수행보다는 사회(특히 직장)에서 성공적인 능력 발휘와 직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힘쓰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적어지고 설령 시간이 있어도 꼭 쉬려고만 하며 집안에 신경 쓸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싫어한다. 자녀들은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가 사회생활의 부조리한 점과 직장생활의 고충을 타협과 양보로서 극복하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아이들 눈에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이를 권위로서 은폐하는 구시대의 상징으로 보여진다. 고등학생 쯤 된 아이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 행동을 보면서, 현재의 아버지, 어머니간의 역할 분담이 일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원래의 이상대로 재배치하려 하든가, 모든 것에 대한 거부와 반감으로 문제가아 되든가, 아니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실의 존형이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김광익, 1983:76-77). 또한 아이들은 의·식·주생활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공부와 과외공부 및 놀이

에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다.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의·식·주생활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도시 아파트 지역의 여 중·고생의 경우는 편리한 가사시설로 손쉽게 부모를 돕기도 함) 간단한 심부름을 하는 정도이다(김영찬, 1985:13).

특히, 도시 아파트의 취락 구조는 자녀들의 사회화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해 부모가 집을 비울 경우가 많고, 이로써 금지된 비디오를 보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탈선의 유혹을 받기 쉽다. 또한,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조금 불편한 것을 인내하는 힘이 부족하며, 모든 것이 쉽게 주어져 안이함과 게으름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편협된 교우관계, 개인주의적 태도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을 갖게 하며, 이들 지역 주민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들에게 공부 잘 해야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 교사에 대한 존경심 결여, 소비적 경향과 배금주의적 태도를 갖게 한다. 또한 경제적 안정이 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 과잉보호로 표현되어 자녀의 독립심, 책임감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황정규, 1989:109-118).

## 2. 도시 빈민 가족

도시 빈민 가족의 어린이·청소년들은 의·식·주생활에 직·간접 위협을 받으며, 영양실조와 불결한 위생 및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다. 여아들은 일찍부터 “여성답도록” 사회화 되지는 않으나 “딸노릇”하라는 사회화를 끊임없이 받는다. 딸노릇이란 어렸을 때는 설겄이, 방청소 등으로 어머니를 돕고, 오빠, 남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누나나 여동생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해서 집안살림을 보태는 일까지 포함한다. 즉, 빈민가정은 생존전략의 하나로서 딸의 교육비 절약을 통한 지출의 극소화와 딸의 취업을 통한 수입의 극대화 방안을 갖는다. 이에 비해, 아들은 부모의 교육적 배려 없이 어릴 때부터 나가 놀고, “시집가면 되는” 딸처럼 아무 직장이나 적당히 취직할 수 없고, 좋은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핑계, 군대문제 등으로 생계유지에서 주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구나 가정의 노동력이 어떤 이유로든 상실되었을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아들은 고등학교, 딸은 중학교, 형편이 나은 집은 딸은 고등학교, 아들은 전문대학 또는 아들은 주간, 딸은 야간 학교에 다닌다(조은, 1990:186-191).

또한, 빈민층 자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학원에

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집안이나 동네에서 무위도식하며 배회하고 만다(김영찬, 1985: 13-14). 그리고, 빈민층 자녀들은 생계해결을 위해 일찍 집을 나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비와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물건을 싸게 구입하거나 가재도구를 안사고 편의시설을 외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거를 통해 가족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결혼 전 동거는 거의 일상화 되었다. 그리고, 빈민가구들에서 부부나 부모-자녀, 형제-자매 관계는 좁은 공간에서 맞대어 살기 때문에 친숙한 듯하나, 싸움이 잦고 긴장에 싸여 있다. 결혼을 하거나 취직해서 출가하면 소원해져서, 결혼한 자매들이 돈을 빌리면 이자를 쳐 주고 받든지, 돈 때문에 형제끼리 왕래를 안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조은, 1990: 192-196).

한편, 도시 빈민가정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탁아소를 통해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이 개별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어머니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탁아소의 양육조차 성별 분업화되어 여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결국, 자녀들은 탁아소와 가정에서 양육되는 가운데 자녀 양육을 어머니(여성)의 역할로 내면화함으로써,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구조는 양육의 사회화가 보편화된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되고 만다(김미하, 1990: 230-238).

그런데 위의 관찰 사례와는 달리, 도시 빈민가정에서는 성(性)에 따른 역할분담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여자에 국한된 일도 남자가 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광익, 1983: 77-78). 이것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입장에서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도시 빈민가정에는 전통적 가부장제 권리가 없으며, 가장의 절대적 권한과 권위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타협이 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도시 빈민가정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현대가족이 귀족이나 부르조아 계급의 가족에서 먼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노동자 계급의 가족에서 먼저 비롯되었는지의 논쟁<sup>3)</sup>, 그리고 가족이 경제적 조건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가의 논쟁<sup>4)</sup>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위 연구들은 주로 특정 지역의 사례연구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 만큼, 보다 많은 가족사적 연구들에 의해 양 입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Aries와 Stone은 전자의 입장, Shorter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조은, 1990b: 24).

4) 좌파 이론과 비판사회학 이론 간의 가족 변화의 동인에 관한 논쟁을 참조할 것.

(조은, 1990b: 25-27).

### 3. 농촌 가족

오늘날의 농촌은 매스 미디어의 보급과 가족, 친지의 도시 진출로 도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전통과의 연결에서 순조로운 편이다. 이것은 도시에 비해 확대가족이 많고, 인근공동체의 사회화 기능이 강하고, 아직은 전통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신일, 1983: 19, 26). 농촌가족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으며, 가장의 역할과 권위 및 구성원 간의 역할분담도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지닌다. 즉, 가장은 바깥일을 전담하며 가사일은 주부의 전담사이다. 자녀의 직업선택, 결혼과 같이 중요한 일은 가장의 의견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그리하여, 농촌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한다. 자녀들은 자신의 진로를 아버지와 달리 기대·계획하나, 현 생활에서 최소한 부모의 경험적 지식과 성실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범사에 있어 아버지의 의견이나 결정을 신뢰하며, 가족의 단결과 우애에 관심을 기울이는 아버지를 지지한다(김광역, 1983: 78-79).

한편, 농촌 가족의 자녀들은 그들의 생활 자체가 의·식·주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남아들은 부모의 농사일을 돕지 않으면 안되고, 여아들은 집안살림의 상당 부분을 떠맡는다. 아울러 부모님들은 도시에 비해 자녀의 사회화에 관심이 낮아, 단순히 공부하라고 말만 할 뿐, 자녀의 학업 성취 욕구를 자극할 어떤 의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학교생활·학교공부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며 공부하라는 교사의 말에 거부감을 느끼고, 학교에서 취미를 살릴 수 있는 활동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사회현실·정치현실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한다(안귀덕, 1989: 180). 그리고, 자녀들이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마치면, 부모나 자녀 할 것 없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 직업을 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농촌의 경제적 형편이 못해서 이기도 하지만, 대도시의 근대화된 과학문명에 대한 동경과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의 결여와도 관련된다(김영찬, 1985: 15).

또한, 가정생활이 개방되어 있어 농촌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위해 자기 동네를 멀리 떠나기도 하며, 부족하고 협소한 교육·문화시설 때문에 구멍가게나 전자오락실, 만화가게를 주로 찾는다. 그리고 교육열이 강한 부모들은 학교교육을 위해 자녀를 도시에 보내 하숙을 시키거나 아예 이주하는 경우마저도 있다(안귀덕, 1989: 181-182).

이상에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도시 중류 가족, 도시 빈민 가족 및 농촌 가족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자녀들의 사회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형적(ideal type)인 전통가족이나 현대가족<sup>5)</sup>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부분 부분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복합하여 어우러진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사회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전통적 가족에서 현대가족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특성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사회의 고유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파악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Ⅲ. 한국 가족의 사회화 관련 요인

앞서 한국 가족의 사회화 양상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다소 언급한 바 있으나, 이를 가족 내적, 외적요인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내적 요인으로서 가정의 형태<sup>6)</sup> 및 구조<sup>7)</sup>와 그것의 가정 밖 사회의 관계는 심리 수준에서 가족 사회화의 배경을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그 나름대로의 구조에 관한 분석은 사회화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모두 사회로 돌리려는 경향을 최소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Poster,1978 참조).

---

5)여기서 말하는 '현대가족'이란, 가족을 다른 하위 체계 및 전체 사회체제와 다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의존하는 하위체제로서, 서로 관결을 맺고 있는 가족의 기능, 가족구조 및 양성역할을 이론화한 Parsons의 가족모형을 가리킨다. 즉, 오늘날 가족의 기능은 사회의 분화에 따라 (1)자녀의 일차적 사회화 기능과 (2)성인의 인성 안정 기능으로 전문화되었다. 또한, 현대 가족의 구조는 (1)친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된 부부중심의 핵가족이며 (2)신주거를 이루며 (3)양계 친족제도에 편입되고 (4)결혼에 기반을 두고(부모보다는 배우자와 자녀에 충실하고,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함) (5)합리성(특수주의가 아닌 보편적 가치관)을 지향하며 (6)성역할과 세대역할을 강력하게 구분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자녀의 사회화의 토대로서, 아버지는 가족에게 물질적 재산을 공급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을 수행하고, 어머니는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수행한다(변화순·김현주, 1990:73-84).

6)가족의 형태란 가족의 크기, 세대별 결합범위별 가족유형 및 가족주기 등을 근거로 파악할 수 있는 가족의 표면적 모습을 가리킨다(김영모, 1990:104 참조).

7)구조(structure)란 F.L.K. Hus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시인된 제도 내에서의 여러 사람의 역할의 조직적 도식이다. 한편 내용(content)은 조직적 도식에 관련된 개인간의 상호작용의 강인성, 강력성 및 다양성을 가리킨다. 예컨대, 구조란 부(父)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자(子)라는 지위에 있는 개인을 연결하는 관계선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말하고, 내용이란 그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느냐 마지못해 하느냐하는 강도를 말한다(이광규, 1982: 301-302). 즉, 가족의 구조란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험적 실체로서의 가족관계를 자료로서 추리된 모형(model)이라 하겠다(이광규, 1982:17-20).



1. 가족 내적 요인

가. 가족의 형성 (죽, 결혼)

현대가족의 결혼은 무엇보다도, 개인이 1차적으로는 부모에 대해서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성실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개인이 부모의 어떠한 간섭없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자유롭다는 것을 함축한다(변화순·김현주, 1990:79-80). 즉, 과거에는 가족에 근거를 둔 중매결혼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남녀 개인간의 선택에 근거한 연애결혼이 이념형(ideal type)으로서 간주된다.

한국의 결혼형태에 대한 1983년 김영모 교수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1 > 거주지역별 결혼형태

거주지역\결혼형태	중매	연애	N.A.	합계(실수)
서울 일반주택	65.5	33.1	1.5	100.1 (1,170)
서울 아파트	48.9	48.2	2.9	100.0 ( 137)
청주 시	66.1	32.8	1.1	100.0 ( 183)
청주 인근 농촌	92.4	6.7	1.0	100.1 ( 105)
안성 읍내	69.4	29.6	1.0	100.0 ( 98)
안성 농촌	91.9	7.1	1.0	100.0 ( 99)
합계	67.5	31.0	1.5	100.0 (1,792)
(실수)	(1,210)	(556)	(26)	

출처 : 김영모(1990:4)

평균적으로 중매와 연애결혼의 비율은 67.5 : 31.0 이나, 농촌의 경우는 91.9 : 7.1이고 도시 아파트 지역은 48.9 : 48.2 였다.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현대적 결혼유형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중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통적으로 가문을 중요시하는 태도 없지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최신덕, 1986:42).

## 나. 가족의 형태

### (1) 가족의 크기

가족의 크기는 1930년 5.3명에서 1960년 5.7명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그 후 급속히 감소하여 1985년에는 4.2명으로 줄었다. 1960년에서 1985년까지의 변화를 통해 2000년의 가족수를 추계하면 평균은 4.2명으로서 85년과 다를 바 없으나, 4인 이하의 가족은 증가하고 6인 이상의 가족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양친과의 동거가족 및 자녀수의 감소를 뜻하며, 조부모와의 관계 및 형제 관계에서 교육적 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 표 2 > 연도별 가족수 (단위 : %, 천가구)

연도\가족수	1	2	3	4	5	6	7	8	9인이상	합계(실수)	평균
1960	2.3	7.1	11.8	14.6	16.0	15.3	12.7	8.9	11.3	100.0( 4,378)	5.7
1970		9.7	13.3	15.5	17.7	16.9	12.8	7.6	6.5	100.0( 5,576)	5.2
1980	4.8	10.5	14.5	20.3	20.0	14.7	9.7	3.0	2.5	100.0( 7,969)	4.6
1985	6.9	12.3	16.5	25.3	19.5	12.4	4.2	1.9	1.0	100.0( 9,571)	4.2
2000	15.2	17.7	16.8	36.4	22.1	11.0	2.5	1.0	0.5	123.2(16,383)	4.2
변화율	8.0	2.9	1.6	2.9	0.9	0.8	2.7	3.1	3.6	4.7	1.1

\* 출처 : 김영모(1990:107)

### (2) 세대별 - 결합범위별 가족유형

먼저, 세대별로 가족유형을 볼 때, 60 - 85년까지 전통적 가족이라 할 수 있는 3세대 이상은 28.6%에서 14.9%로 감소했고, 1세대와 2세대 가족은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00년에는 3세대 이상 가족은 더욱 감소할 것이며, 단독세대와 1세대 가족은 약간 감소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유형을 결합범위별로 보면, 핵가족(부부-자녀, 편부모-자녀)이 1966년 65.3%에서 1985년 69.3%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73.5%로 증가 예정이며, 확대가족(양친-부부-자녀, 편부모-부부-자녀, 양친-부부, 편부모-부부, 부부-자녀-부부형제)이 1966년 22.8%에서 1985년 12.3%로 크게 감소했고 이 추세라면 2000년에는 8.4%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확대가족의 감소만큼 핵가족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사회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 가족구조가 반드시 핵가족 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분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독가구의 가족이 크게 증가했고,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사는 가족도 적지 않다(한겨레신문, 1994.5.5).

< 표 3 >                      세대별-결합범위별 가족유형                      (단위 : %)

세대	결합범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2000	변화율
1 세대	부 부		4.5	5.5	4.8	6.0	7.3	10.9	3.2
	기 타		0.3	1.3	1.9	2.3	2.3	14.4	35.1
	소 계	7.5	4.8	6.8	6.7	8.3	9.5	16.8	5.2
2 세대	부 부·자 녀		52.9	55.5	53.2	53.0	53.4	53.4	0.0
	편부모·자녀		7.9	10.6	9.7	9.3	8.6	9.2	0.2
	부 부·양 친		0.6	0.6	0.1	0.2	0.7	0.4	-2.6
	부 부·편부모		0.8	0.8	0.4	0.4			
	부 부·자 녀· 부 부의 형 제		2.0	2.0	2.1	2.3	2.2	2.2	0.5
	기 타		1.9	0.6	3.4	3.3	2.1	2.1	0.6
	소 계	63.9	66.1	70.1	68.9	68.5	67.0	67.0	0.1
3 세대	부 부·자 녀· 양 친		6.7	5.1	2.0	1.9	2.1	1.0	-3.6
	부 부·자 녀· 편부모		12.7	12.3	8.5	7.9	7.3	4.8	-2.2
	기 타		4.1	4.7	8.8	6.7	5.0	5.9	1.2
소 계	27.0	23.5	22.1	19.2	16.5	14.5	10.1	-2.0	
4세대이상		1.6		1.2	0.9	0.5	0.4	0.1	-4.4
단독가구			2.3		4.2	4.8	6.9	17.8	10.5
기 타			2.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4.2	4.7
(가 족 수)		(4,378)	(5,057)	(5,576)	(6,648)	(7,969)	(9,571)	(16,316)	

\* 출처 : 김영모(1990:110)

(3) 가족주기

가족주기(또는 가족생활주기)란 가족이 결혼에 의해 생성되고 출산과 사망에 의해 팽창, 소멸되는 변화과정을 가리킨다. 우리의 경우 공교육기관의 증가, 미혼·기혼여성의 취업율 증가, 피임기법의 보급 등으로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력이 떨어짐에 따라, 여성이 육아에 전념해야 할 시간이 1965년 이래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가족의 양육기능의 약화를 의미하나,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적은 수의 자녀를 훌륭히 키워 보려는 부모의 소망과 가정 생활 양식의 변화를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가 지나쳐 자녀에 대한 과보호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막내의 출생과 막내의 결혼시 어머니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평균수명은 증가함에 따라, 막내 결혼 후 배우자 사망까지의 빈 둥지(empty nest)시기가 증가함으로써, 이 늘어난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더구나, 핵가족화와 함께 손주들을 돌볼 기회도 적어지고, 설사 자식부부들과 산다해도 '없혀 사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마땅한 소일거리나 여가활용의 장소와 시설이 부족하기에 "갈 곳 없는 노인들"(동아일보, 1990.5.10)이 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교육기회와 복지, 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시급하다(김민호, 1993 참조).

< 표 4 > 가족주기의 변화 (처의 연령)

단 계 \ 연 도	1935	1945	1955	1965	1975
결 혼	17.1	18.4	20.5	22.8	23.7
첫 아 이 출 생	21.2	22.0	23.2	24.8	25.3
막 내 출 생	32.9	32.8	33.2	31.0	30.8
첫 아 이 결 혼	46.0	48.8	48.8	50.2	50.7
막 내 결 혼	56.7	58.8	58.8	56.4	56.2
배 우 자 1 명 사 망	55.5	58.9	58.8	63.4	63.8
나머지배우자사망	60.8	66.7	66.7	71.5	72.2

\* 출처 : 권희완(1982).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주기 변천에 관한 고찰. 인구보건  
논집 1-2.을 김영모(190:115)에서 재인용

다. 가족의 구조

(1) 부부관계

(가) 역할구조

남편-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아내-어머니로서의 역할분담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즉, 아기돌보기, 아기 옷이나 장난감 구입, 집안청소, 세탁 등 육아와 가사에 대해 남편이 어느정도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농촌보다 도시에서 그것도 아파트 지역에서가 아내의 육아를 돕는 남편의 비율이 높았다.

< 표 5 > 거주지역별 아기돌보기에 대한 남편의 도움 정도

거주지역\구분	항상 도와준다	가끔 도와준다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합계(실수)
서울일반주택	15.8	50.9	33.3	100.0 ( 986)
서울아파트	13.5	59.4	27.0	99.9 ( 111)
청주시	26.7	45.8	27.5	100.0 ( 131)
청주인근농촌	9.8	38.0	52.2	100.0 ( 92)
안성읍내	22.6	45.2	32.1	99.9 ( 84)
안성농촌	18.7	41.9	39.8	100.0 ( 93)
합계	16.8	49.4	33.8	100.0 (1,497)
(실수)	(251)	(740)	(506)	

\* 출처 : 김영모(1990:24)

그러나, 위의 수치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아내의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거나 가끔 도와줄 뿐이라는 남편도 꽤 많이 있고, 또 앞서 지적했듯이, 취업모의 경우라도 남편이 가사일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나) 권력구조

권력구조는 주택의 매매, 자녀교육, 가사살림, 친척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 대표권, 관리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역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리고 가정의 특수한 상황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는 남편이 또는 남편

과 아내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가족의 수입원이 남편이기 때문이기도 하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남편의 적은 수입때문에 맞벌이 내지는 가족의 노동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저소득층에서도 여전히 남편-아버지 위주의 결정 관행이 있는 것은(김미하, 1990 참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한 관계로 내면화할 가능성이 적다. 오히려 소년과 소녀에게 다른 역할을 주입함으로써 양성 간의 불평등을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 (2) 부모 - 자녀관계

근래에 들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것을 두고는 흔히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라고들 부른다. 그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의 자녀관, 가족관계관이 변하고 있다. 젊은층의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가 엄격하기 보다는 허용적이며(김영모, 1990:40), 가장중심의 가족관계보다는 개개 가족원의 개성이 반영된 횡적 가족유대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영모, 1990:55). 비록 이들이 민주적 양육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자녀들에게 과잉보호와 통제의 결여를 드러냄으로써 많은 교육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둘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접촉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직종의 다양화로 대부분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었고, 가장은 사회 경쟁속에서 자신을 지켜 나가기에 바쁘고 가정주부들은 취업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아져 가며, 아이들도 학교교육 기간의 연장과 과외학습 활동의 증가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 역시 줄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율 상승에 따른 편부모가족, 재혼가족들이 많아지고, 미혼모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모든 것들은 가정 내에서 '아버지 부재' '어머니 부재'에 의한 부성·모성실조를 가져와 자녀의 지적·도덕적·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Finkelstein, 1982:656-671).

셋째, 비록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민주적 양육태도를 견지하려고는 하나, 실제로는 가부장제적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가부장제적 가족관계를 몸에 익혀 왔기 때문에 - 대부분의 도시인은 어린시절을 농촌에서 보낸 후 도시로 이주했다 - 부모역할을 혼돈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지향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부모로써 자신감을 잃고 자녀들에게 적

절한 모델이 되지 못한다(이동원, 1986:36-37). 게다가 이러한 이중성은 부모의 권위를 상실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김광억, 1983:77), 더욱 심화되어 좁은 범위의 가족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가족이기주의를 형성하여 부모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에 대한 과보호 내지 자녀 위주의 방임주의를 결과했다(이동원, 1986:43-44).

네째, 특히 도시 중류 가족의 경우는, 자녀들의 욕구를 무한정 충족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양 생각하는데, 이는 부모가 성장할 당시 자신들의 결핍된 욕구를 보상하려 하기 때문이다(이동원, 1986:41-43).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앞서 부모의 부재 그 자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결론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부재한 경우라도 대리인의 관심있는 양육과 아동들의 그 대리인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으며<sup>8)</sup>, 자녀들의 성(性)적 비행도 이들의 성적 욕구가 단지 부모의 부재로 인해 적절히 억압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사회적 퇴폐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변화순·김현주, 1990:105-116).

### (3) 노부모와의 관계

핵가족화의 진전과 함께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드물어져 가고 있으며<sup>9)</sup>, 설령 함께 동거한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 노부모를 아들집에 모시는 형태라기 보다는 노부모가 따로 살던 아들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최신덕, 1986:49-50). 이처럼, 조부모와 손자들과의 거리가 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멀어졌기에, 그나마 전통성을 간직한 조부모 세대의 문화가 조부모를 통해 손자 세대들에게 전달될 기회는 극히 제한된 셈이다.

8)Wootton에 따르면, '모성실조'이론은 2차세계대전 이후 전쟁에 참여했던 남성들을 일터로 되돌려 보내고, 일터에 나가 있던 여성들을 가정 안으로 복귀시키며, 또한 국가가 탁아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사회정책을 합법화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이다. 그에 의하면, 국가정책 안에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Fitz, 1981:21). 또한, Boggi는 어머니 역할에 대해 신성함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와 정치활동 참여에 있어 여성의 주변화와 자기 배제 행위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변화순·김현주, 1990:114).

9)한국노인문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 단독세대는 88년 20.6%에서 89년 28%로 증가했고, 자녀들과 함께 기거하는 노인들은 82년 80.4%에서 92년 51.8%로 줄어들었다. 특히, 장남과 함께 사는 경우는 72년 80%에서 88년에는 39.7%로 줄어들었다(동아일보, 1990.5.10; 박재간, 1992:14).

## 2. 가족 외적 요인

### 가. 가족 밖의 사회화 기관

가족 안에서의 사회화는 가족의 형성, 가족의 형태와 구조라는 내적 요인 외에도 가족과 가족 밖의 다른 사회화 기관(agent) — 예컨대, 또래집단, 학교, 매스 미디어, 교회 등 — 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

#### (1) 또래집단

Bronfenbrenner는 아동을 '또래지향적' 아동과 '성인지향적' 아동으로 분류하면서, 또래지향적 아동은 또래집단의 관심보다는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본다. 즉, 부모와 어른들이 아동의 삶에 무관심하여 애정표현, 원조, 훈육, 통제의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래집단이 부모 대신 들어와 앉는 것이다(문용린·김영철, 1991:140-141, 144-151). 따라서 자녀의 사회화에 있어서 또래집단의 영향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작용할 뿐이지, 또래집단이 부모의 기능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 (2) 학교

현대 사회에서 학교교육이 사회이동의 중요한 수단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 우리는 '혈연적 수직구조'의 원칙 아래 토지를 상속의 대상으로 삼아 왔던 전통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온갖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현대 사회생활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학교교육을 자녀들에게 물려 주려고 마음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이광규, 1982:343). 그리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공부하라"는 말을 알면서도 많이 하게 되며(동아일보, 1990.5.3), 아이들은 국민학교 때부터 입시공부 태세에 돌입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학교나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정은 완전히 잠자는 곳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학생 뿐만 아니라 부모, 사회 모두가 「집단적인 입시 강박증」에 걸릴 정도로, 학교의 가정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하다(이동원, 1986:45-46).

#### (3) 매스 미디어

오늘날 텔레비전이 자녀들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과장하자면, 부모 이상이라 할 정도이다.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적지 않으며, 이 시간 동안 가



족 간의 대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도 많은 정보를 텔레비전을 통해 얻고, 이제껏 자녀들 세대에 감춰져 왔던 성인세대의 모습 — 정치, 경제, 문화 전반 — 을 쉽게 획득하고 있다. 사실, 이제껏 성인과 아동을 구분짓고 성인이 아동에게 권위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획득하자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자문화 때문이었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파매체의 급속한 보급으로 말미암아 아동들은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성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소위 '성인기'와 구별되는 '아동기'가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임채정, 1987). 이것은 치열한 학력 경쟁과 취업 경쟁 속에 학교교육을 받는 기간이 점차 증가하여 사회진출 이전 시기인 청소년기가 연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모순을 일으킨다. 즉, 사회문화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성인문화에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 반면에, 사회역할 면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입문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자신들의 정체감의 위기를 더욱 강하게 겪지 않을 수 없다.

#### 나. 한국 가족의 사회문화적 배경

우리는 정치적으로 지난 100여년간 제국열강의 침략, 한일합방에 의한 일제 식민 통치, 해방, 국토분단, 6.25 그리고 뒤이은 몇 차례의 정치변동을 겪는 가운데 잠재된 불안의식을 지니고 생활해 왔다. 특히, 국토분단은 많은 피난민, 미망인, 전쟁고아, 이산가족 등을 낳았다(최신덕, 1986:50-51). 또한, 산업화 추진에 따라 경제구조는 농촌가족의 해체를 촉진시키고 도시로의 이주 및 핵가족화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더우기 기혼 여성의 취업은 가정으로부터 부모를 벗어나고, 배금주의적 가치관을 강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능하였다(최신덕, 1986:51; 이동원, 1986:46). 산업화 추진에 따른 직종별, 학력별, 성별 임금격차는 도시 중류 가족의 높은 교육열에 불을 붙였고, 빈민가구에서 생계 책임을 딸에게 의존하는 기제를 만들었다(조은, 1990:187).

한편, 구중산층과 달리 전문적·상징적 지식을 다루는 신중산층의 대두로, 사회적 유대의 형태가 개인적 유기적 유대에서 인격화된 유기적 유대로 변화하고 있으며<sup>10)</sup>,

10) 개인적 유기적 유대는 복잡한 경제적 분업의 결과로 생겨났다. 즉,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구중산층 사람들이 명확한 역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편, 인격화된 유기적 유대는 문화적 또는 상징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분업이 진전된 결과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생긴 것이다. 여기서는 애매한 인격 아이덴티티와 유연성이 풍부한 역할 수행에 의해 사회적 유대가 형성된다(최희선, 1984:128-129).

이에 따라 중산층 가족 내부의 1차적 사회화 형태도 구중산층의 '눈에 보이는 방법'에서 신중산층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신중산층은 주관적으로는 인격적 아이덴티티를 요구하면서도 객관적으로는 개인적 아이덴티티에 지배되는 모순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중산층의 계급적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눈에 보이는 교육방법'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최희선, 1984 참조). 이 점은 비록 영국 중산층 가족에 관한 것이긴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모들이 왜 표면적으로는 '현대적인 민주적 양육태도'를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이중적 부모역할 태도를 보이는가를 설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다. 한국 가족의 생태학적 배경

앞서 가족 안에서의 사회화 양상에 관한 기록을 보더라도, 도시 아파트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은 농촌지역 아동들과 상당히 다른 환경에서 사회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도시의 가옥구조 특히 아파트 구조는 거실에서 모든 식구와 손님이 어울려 지내게 함으로써 가장과 가족원,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간에 지켜야 할 공간적, 사회적 거리를 없애 부부간의 이야기와 아이들의 이야기의 구분이 없고,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어 남녀 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 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과 이웃과의 폐쇄적 거주 형태는 자녀들의 개인중심적 생활양식과 태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는 이웃을 가정의 확대판으로 생각하고 이웃끼리 어울려 지내므로, 자녀의 사회화에 있어 적어도 지역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있어서 만큼은 도시 아파트 지역과는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농촌은 도시와는 달리 넓은 자연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사회화시킴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뿐만 아니라, 인생관, 우주관 등에서도 도시 자녀들과는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농촌, 어촌, 도서벽지, 산촌, 공단지역, 관광지역, 아파트 단지(중산층/서민) 등등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과 취락유형은 가족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

11) '눈에 보이는 교육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방법'과는 대조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방법'에서는 자녀를 명시적이기 보다는 암시적으로 통제하고, 자녀 스스로가 학습상황을 재구성하며 배워야 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 조직케 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사회관계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게 하며, 특수한 기능 전달을 강조하지 않으며,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최희선, 1984).

#### IV. 맺 음 말 : 한국 가족의 사회화 기능 강화 방안

오늘날 한국 가족의 사회화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는 가족의 전형(ideal type)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을 단일한 보편적 실체에서만 구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을 나름대로 의미있는 가족의 한 형태로 간주할 것인지를 문제이다. 앞의 경우는, 현재의 가족을 내적으로 그리고 전체 사회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해체' 또는 '기능결손'의 부정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시각이다. 반면에 뒤의 입장은, 다양한 형태로 대두하고 있는 가족들 - 예컨대, 핵가족을 포함하여 동거가족, 편부모 가족, 1인가구 가족, 맞벌이 가족 등 - 과 그 가족들의 기능의 다양함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려는 가족원들의 열망의 표현으로 보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맥락에서 가족의 사회화 기능을 강화하려는 경우이다.

먼저, '결손가족론'의 대처 방안을 검토해 보자. 여기서는 가족의 발전을 전통적 확대가족에서 현대 핵가족으로의 단선적 진화에서 찾는다. 따라서 Parsons의 현대가족 유형을 이상적 모형으로 삼아, 이에 미치지 못한 가족들 - 예컨대, 편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 미혼모 가족, 동거가족 또는 심리적 유대가 약화된 가족 - 을 결손가족 내지 해체된 가족으로서 간주한다. 즉, 결손 또는 해체 가족의 경우, 자녀의 사회화에서 부모의 정상적 역할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화의 기능에 문제를 지닌 가족들이 사회화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처방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예컨대, 자녀교육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태도 변화와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sup>12)</sup>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전략이다. 예컨대, 탁아 프로그램, 학교교육 기능 확장 및 강화 프로그램<sup>13)</sup>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정상적인 가족을 구성하기가 불가능한 아이들을 위해 기존 가족을 대리하는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등의 전략이다(장인협, 1986 참조).

12)보다 넓은 범위로서 가정생활 교육(family-life education)을 고려할 수 있다(Brillinger and Brundage, 1989: 121-124).

13)Bronfenbrenner는 미국 문화에서 사회화 과정의 핵심을 가정이라 인정하나, 부모 스스로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기능을 확장,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문용린·김영철, 1991: 202-210)

이제껏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의 사회화 기능 강화를 위해 많은 방안들이 강구되었고, 그에 상응한 조치들도 취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Parsons의 현대가족 모형은 특정한 시기의 서구 산업사회에 한정된 곳에 불과할 뿐, 오늘날 한국의 모든 가족들이 따라야 할 이상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서구 산업사회와 동일한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서구와는 다른 고유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바꿔말해, 한국의 가족은 우리의 고유한 사회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생존전략' 차원에서 나름의 모습을 형성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겠다. 따라서, 한국 가족의 사회화 기능 강화 방안도 서구사회와는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예컨대, '버려진 아이'가 국내보다는 국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것은 우리의 가족관이 서구의 가족관과 크게 다름을 보여 준다. 따라서, '버려진 아이'의 사회화 문제는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방식 속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편-아버지의 도구적 역할은 아내-어머니의 표현적 역할과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도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많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분담이 새롭게 재정립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자녀교육에 성공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셋째, 과연 Parsons의 역할구분이 가정의 행복과 통합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지 의심스럽다. 가족의 행복은 전형적인 가족 구조와 형태를 만드는데 있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간에 마음의 장벽 없이 서로 신뢰하고 도우려는 마음가짐에 있다고 본다. 만일, 우리들이 이상의 문제들을 보다 진지하고 솔직하게 논의하지 않은 채 Parsons의 가족유형만을 무조건 고수하려 한다면, 필자만이 아니라 비판 사회학자나 여성학자들로부터 "가족이 사회적 생산관계 또는 가부장제적 사회관계를 재생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이효재, 1988참조).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의 전형을 단일한 보편적 실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적,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구성될 수 있는 다양한 실체들(multiple realities)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책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가족을, 항상성을 향한 유기체와 달리, 생존을 위해 1)내외적 개방을 하고 2)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의 창출능력을 지니며 3)의사소통과 정보에 기초한 경영구성 및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변화순·김현주, 1990:82-84). 다시말해

기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가족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바라 본다(김광익, 1983; 조은, 1990 참조).

이 시각에 따라 오늘날 가족의 사회화 기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변화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고답적 의식이다. 즉, 여기서는 가족문제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족제도나 일탈적 가족 관계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가족문제를 '결손'이나 '해체'로 바라보는 관점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다시말해 우리들이 '결손가족론'을 가족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간주함으로써 필연적으로(논리적으로 반드시) 초래되는 결과를 문제 삼는다. 이 시각은 우리가 가족의 전형을 단지 하나의 모형에서만 구하게 되면, 소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어머니 신화론' 및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기존 가족 질서를 당연시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 속의 피동적 객체로 길들여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가족성원들이 스스로의 합의와 노력으로 기존의 가족질서를 변화시켜 새로운 가족질서를 창조해 낼 때, 비로소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사회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가족 성원들 특히 부모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및 사회에 대해 주체적이며 비판적인 성찰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즉, 우리들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사회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가족을 융통성 있게 형성해 왔다는 것, 가족 내 성과 세대에 따른 역할분담도 가족원의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 내 사회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족질서를 형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어머니 신화론' 및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 등을 깨달아야 한다(이동원, 1986: 49참조). 그렇게 할 때, 가족은 가족 밖의 사회화 기관·사회문화적 및 생태적 요인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지배적 가치체계를 정당화하는 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가족을 당당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새롭게 형성된 가족질서 안으로 자녀들을 소신껏 사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한국 가족이 봉착한 사회화 기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익(1983). 청소년과 가정-가족의 역할구조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청소년.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73-82.
- 김미하(1990). 노동자 가족의 성별 분업.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207-246.
- 김민호(1993). 제주 풍속에 적합한 노인복지 방안.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22집, 47-88.
- 김신일 외(1983). 한국의 초기 사회화 과정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영모(1990). 한국가족정책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영찬 외(1989). 한국인의 학동기 사회화 과정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재간(1992). 이 땅의 노인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성서와 함께. 제198호, 13-17.
- 신기철·신용철(1989).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안귀덕(1989). 농촌지역 청소년의 사회화. 황정규 외.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9-182.
- 이광규(1982).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 이동원(1986). 현대사회의 부모의 역할.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편). 부모교육 프로그램 탐색. 서울: 창지사, 35-49.
- 이효재(1988). 고전 사회학의 가족이론과 파슨스의 핵가족론. 이효재(편).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서울: 까치, 11-32.
- 장인협(1986). 아동복지.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 정희경(1986). 가정교육-청소년 문제와 가정교육.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236-246.
- 조 은(1990a). 도시빈민 가족의 생존전략과 여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178-206.
- 조 은(1990b). 역사적 형태로서의 가족과 계급.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정(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20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11-41.
- 차경수(1986). 가정교육-한국 가정교육의 방향과 과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223-235.
- 최신덕(1986). 현대사회의 가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41-54.
- 최재석(1984). 제주도의 친족조직. 서울: 일지사.

- 최재석(1986). 전통가족의 특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 28-40.
- 최흥기(1983). 가족구조의 변화와 어린이의 사회화. 이성진·허형(편). 국가발전과 어린이. 서울:배영사, 193-216.
- 한국사회사연구회(1990).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정(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20집). 서울:문학과 지성사.
- 한선애·유철인(1994). 가정교육의 이상과 실천 : 국제화와 가족. 제주국제협의회·제주도교육청·제주교육대학교 공동주최. 국제화 시대의 제주교육 심포지움 발표 유인물, 55-63.
- 황정규 외(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 Bernstein, B.(1976). Class and Pedagogies : visible and invisible. 최희선(번역)(1984). 교육의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 서울:교육 과학사, 121-152.
- Bigner, J. J.(1979). Parent-Child Relations. 이은화·이경우(공역)(1986). 부모교육 입문. 서울:창지사.
- Brillinger, H. E.& Brundage, D. H.(1989). Family-life Education. Titmus, C. J.(ed).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Oxford: Pergamon Press, 121-124.
- Bronfenbrenner,U.(1970). Two Worlds of Childhood : U.S. & U.S.S.R. 문용린·김영철(역)(1991). 브론펜브레너가 본 미국과 소련의 아이들. 서울:샘터.
- Finkelstein, B. (1982). Family Studies. Mitzel, H. E. (ed).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vol. 2, 656-671.
- Fitz, J. (1981). Welfare, the Family and the Child. The Open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State. Block 5, Education, Welfare, and Social Order.
- Michel, A. (1986): Sociologie de la famille et du mariage. 변화순·김현주(역) (1990). 가족과 결혼의 사회학. 서울:한울.
- Poster, M. (1978). Elements of a Critical Theory of the Family. 박민자(역)(1988). 비판가족이론의 구성요소. 이효재(편).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서울:가치, 115-139.
- Postman, N. (1982). The Disappearance of Childhood. 임채정(역) (1987). 사라지는 어린이. 서울:분도출판사.
- 동아일보, 1990.5.2; 5.3; 5.8; 5.10; 5.17.
- 한겨레신문, 1994.5.5.